

- 주요 뉴스: 미국 10월 소매판매, 8개월래 최대폭 증가. 통화긴축 완화 기대는 감소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방기금금리 정점은 4.75%~5.25%가 합리적
 - ECB,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고. 부총재는 내년 초까지 고물가 예상
 - 영국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1년만에 최고치.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기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10월 소매판매로 인한 긴축완화 기대 저하 등이 영향
주가 하락[-0.8%],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Target의 실적 부진 등이 매도 증가로 연결
 유로 Stoxx600지수는 소매 및 자동차관련주 약세 등으로 1.0%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지정학적 우려 완화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이 배경
 유로화가치는 0.4% 상승, 엔화는 0.2%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지속 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유로존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11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37.4원, +12.4원) 1.0% 상승, 한국 CDS 하락

		11/16일	11/15일	전일대비			11/16일	11/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58.8	3,991.7	-0.83%	국채 금리 10y	미국	3.69%	3.77%	-8bp
	유럽	430.17	434.44	-0.98%		독일	2.00%	2.11%	-11bp
	중국	3,120.0	3,134.1	-0.45%		영국	3.15%	3.30%	-15bp
	일본	28,028	27,990	0.14%	CDS 5y	한국	52bp	54bp	-2bp
	한국	2,477.5	2,480.3	-0.12%		중국	78bp	76bp	2bp
환율	달러지수	106.30	106.40	-0.09%	위험 지표	EMBI+	-	402	-
	유로화	1.0391	1.0349	0.41%		VIX	24.11	24.54	-1.75%
	엔화	139.55	139.28	-0.19%		WTI유	85.59	86.92	-1.53%
	위안화	7.0982	7.0455	-0.74%	원자재	구리	375.9	382.0	-1.61%
	원화	1,325.0	1,317.6	-0.56%		금	1,773.7	1,778.9	-0.3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0월 소매판매, 8개월래 최대폭 증가. 통화긴축 완화 기대는 감소

-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3% 늘어 전월(0.0%) 및 예상치(1.0%) 상회.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전망 불확실성에서도 소비자 수요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정부의 대규모 지원 및 지속적인 임금상승 등이 가계의 소비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다른 한편에서는 연말 연휴 기간을 앞두고 가계의 제품 구매가 좀 더 일찍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분석. 한편 13개 부문 가운데 자동차 및 음식 등 9개 부문에서 늘었고, 휘발유 부문은 가격 상승 영향으로 4.1% 증가
- 이번 결과는 4/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었으며, 이에 몇몇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평가. 내년 초 소비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10월 소매판매 결과로 연준은 12월 FOMC에서 기존의 금리인상 경로를 유지할 소지(Bloomberg Economics의 Eliza Winger)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방기금금리 정점은 4.75%~5.25%가 합리적

- 데일리 총재는 연준의 정책결정자들이 연방기금금리를 4.75%~5.25%까지 높이고, 해당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금리인상 종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첨언
- 연준의 월러 이사는 최근 경제지표 고려 시 12월 0.50%p 인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발언.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 금융위험이 연준의 금리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캔사스 시티 연은의 조지 총재는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 미국 재무장관,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

- 재무부는 엘런 장관과 인민은행 이강 총재가 에너지, 상품가격, 향후 양국의 경제 전망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평가. 또한 이번 만남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설명. 인민은행 역시 경제 및 금융 현안에 대해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

■ WTO 사무총장, 일부 주요국은 실질적인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

- 오콘조아웨알라 사무총장은 러·우 전쟁,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전망을 어둡게 만든다고 평가. 특히 신흥국 및 저소득국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첨언

■ ECB,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고. 부총재는 내년 초까지 고물가 예상

-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향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영향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 그리고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부채비용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데 쿤도스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간 내에 크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금년 12월 금리가 2%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 이탈리아 중앙은행 비스코 총재는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추가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 영국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1년만에 최고치.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기인

- 10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11.1%로 1981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 이는 전월(10.1%) 및 예상치(10.7%) 상회.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 이번 결과는 영란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
- 베일리 총재는 수급이 팽팽한(tight) 노동시장이 향후 금리전망의 중요한 열쇠라고 주장. 헛트 재무장관은 영란은행을 도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힘들지만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

■ 중국 10월 신규 주택가격, 7년래 최대폭 하락. 인민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강조

- 10월 신규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1.6% 내려 전월(-1.5%) 대비 하락세 심화. 최근 정부 당국이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았으나 수요 촉진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에 주택가격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 인민은행은 부동산 시장 지원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1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기업재고(전월비): 0.4%, 8월(0.9%), 예상치(0.5%)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실업률 추정 오류 및 생산성 저하, 최종금리 상향을 유도할 가능성 - 블룸버그

(What If the Fed Has to Take Rates Up to 6%?)

- 실제 물가안정실업률(u^*)이 연준 추정치(현재 4.3~4.4%)보다 높으면, 최근의 낮은 실업률은 기존 예상보다 심한 경제과열을 의미하기에 연준은 정책금리를 더 높일 필요. u^* 가 5%라고 가정 시 관성 테일러 준칙 상 최종금리는 6%
- 팬데믹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실제 잠재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경우도 더 높은 정책금리로 귀결. '25년 잠재성장률이 1.3%로 낮아지면 FRB/US 모형 상 '23년말 정책금리는 5%로 점도표 추정치(4.6%)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 다만 심각한 수요 둔화 및 금융 혼란이 발생한다면 내년 말 정책금리는 4.1%로 점도표 추정치보다 낮아질 전망

■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책 전환, 재정수입 악화시스템 리스크 확대 등이 원인 - 블룸버그

(What Prompted Xi Jinping's Swift Turn From Zero to Hero?)

- 시 주석은 3연임을 확정 후 다음의 세 가지 정책을 조정. △악명 높은 코로나 정책 완화 △부동산 부문 규제금융 패키지 공개 △대미정책 완화
- 시 주석이 정책을 빠르게 전환한 첫 번째 이유는 예산 제약. 경기둔화 등으로 중국의 재정수입이 악화되는 가운데, 당국은 PCR 테스트 및 봉쇄조치 등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 관련 비용을 우려
- 둘째,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의 부채 조달을 통한 부동산 투자 확대가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 마지막으로 대미정책 전환은 지정학적 긴장이 중국의 기술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시 주석의 야망을 방해

■ 영국 위기의 교훈, 점진적인 정책 조정의 중요성 - Financial Times

(UK crisis shows the need for gradualism)

- 영국의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금융과 물가안정 간 상충관계(trade-off). 정부는 높은 부채수준, 고평가된 주택가격, 차입비용 상승에 직면. 이에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긴축보다는, 경제 지원을 제공하면서 점진적인 정책 전환에 나설 필요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란은행도 취약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여 점진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특히 영란은행에게는 인플레이션 하락 유도과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의 노력이 요구

■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 채권 손실로 신뢰 문제가 부상할 소지 - Financial Times

(Test for central bank credibility looms on likely bond losses)

- 금년 채권가격 하락 지속으로 선진국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관련 우려가 제기. 일각에서는 칠레 등 몇몇 중앙은행이 과거의 재정 신뢰를 바탕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 자본금으로도 운영되었던 사례를 인용하며 관련 불안을 일축
-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현재와 같은 부채 증가를 초래. 또한 중앙은행은 지급불능 상태가 도래하면 화폐주조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데 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유도
-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시행과 금융충격 흡수를 위한 적정 수준의 자본을 강조. 연준은 적정 자본 문제가 크지 않으나 여타 선진국의 경우 안전망이 요구

■ 영국 주택시장, 더 큰 폭의 가격 하락 가능성에 직면 - 블룸버그

(UK Housing Market Is Getting Desperate Once Again)

- 최근 부동산 시장은 수요 부족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했던 '08년과 유사. 10월 각종 부동산 지표로 볼 때 거래량 급감과 가격 하락의 신호가 발신. 3년 고정 모기지금리는 1월 1.6%에서 10월 6%까지 급등. 아울러 각종 세제 또한 부동산 보유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
- 부동산 강세론자들은 '08년, 브렉시트, '20년에도 빠르게 회복하고 호황을 누렸음을 강조. 하지만 이들은 당시 모기지 금리가 높지 않고 하락했다는 점을 간과. 향후 모기지금리가 소폭 하락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 급락에 유의할 필요

■ 국채금리 하락과 증시 강세, 연준의 긴축 강화를 초래할 가능성 - WSJ

(Markets Zoom Toward Collision With the Fed)

■ 세계 식량가격, 생산 확대와 온화한 기후 등으로 하락세 예상 - 블룸버그

(Food Prices Are Coming Down — Just Not in Time for Thanksgiving)

■ 신흥국 회사채 프리미엄, 부채 부담 확대에 따른 위험 신호를 발신 - 블룸버그

(Emerging Market Corporate Debt Flashes a Risky Signal as Costs Sur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